

## 哲學의 一般化와 俗流化(十)

申南澈

나의 藝術的 志向은 was를 was대로 靜觀의 心情에서 亨樂하려 하기로 하나 그러나 나는 나의 思惟의 任勢가 그것을 許諾하지 안함을 본다. 이 葛藤은 나의 思惟와 經驗이 分化되고 發展되고 檢討됨을 짜라 歸着點을 發見하고 말 것인 것을 確信하나 더구나 나는 나의 思惟의 任勢가 藝術的 志向을 이기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잇는 것이나 現在의 나에게 이 兩者의 葛藤이 나에게 한 큰 苦痛임을 認識하지 안코는 못견디겠다.

나는 나의 思惟의 任勢가 藝術的 志向을 克服하여야만 하겠다는 것을 自覽한 것만이 벌써 나의 問題에 對한 半 以上の 解決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나는 나의 그 藝術的 志向이 그것의 殘煙을 어떤 새는 불길까지 올라 치미는 것을 늦기는 것이다.

나는 지금에 自身에 對한 조고만 告白을 하는 餘裕를 가졌섯스나 다시 우리의 問題에 도라가 그것에 對한 吟味를 繼續하여보자. 그리하여 이 小稿의 第二 義的 意義를 가진 韓氏의 態度도 다시 한 번 살피어 보자.

以上에 나는 was와 wie와의 關係를 考察하여 前者의 客觀的 超越的 意味와 後者의 主觀的 方法論的 意味와를 大體로 指示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以上の 二 個의 概念 以外에 第三의 다른 概念이 이곳에 必然的으로 想起됨을 보겠스니 그것은 原因探求의 概念인 warum(무슨 까닭으로)이다. 中天이 滿月이 『무슨 까닭으로』 잇스며 한 개의 돌알이 『왜』 마당에 잇는가? 우리는 이 問題에 對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을 굴리어본다. 그러나 그 warum에 對하여는 도무지 完全한 滿足한 解答을 어들 수 업슴을 發見하겠다. 望日의 滿月이 中天에서 빛남은 地球의 人間에게 神의 全能的 權威를 示顯하기 爲함이다... 等の warum 쏘는 한 개의 돌알이 마당에 잇슴은 玉順이의 작란감이 되기 爲함이다... 等の 이 우리의 理論的 欲求에 符合 할 것인가?

우리가 一個의 事物에 對하여 發하는 warum은 形而上學的 志向의 外部的

結果이라고 볼 수 있다. 中天의 滿月이라든가 마당에 있는 돌알에 對하여 warum을 設定하는 것은 世界の 存在에 對하여 現實的 存在에 對하여 『무슨 까닭으로』 實在하느냐의 問題를 賦與함에 不過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神學的 問題의 提起이다. 卍라서 宗教의 問題삼을 바이라고 생각하나 우리의 論理的 現實的 要求는 決코 그것에 滿足하지 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wie를 通하여 was를 把握 할 卍름이다. 中天의 明月이 皎皎함은 月의 地球에 對한 天文學的 原理에 依하여 卽 wie에 依하여 說明될 것이고 決코 warum에 對한 問題라고는 생각하지 안는다. 그럼으로 우리는 wie에 依한 was의 把握으로써 充分하다하겠다. 宗教의 問題로서의 warum은 was와 was를 問題삼는 것과 달은 意味에 잇서서 問題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